



“K리그 우승하고 광주 알리겠다”

이정호 매직이 K리그를 넘어 아시아무대로 향한다. 눈부신 2023시즌을 보냈던 광주FC가 자신감을 안고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지난 3일부터 2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1차 동계훈련을 갖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위업업을 했다.

지난 시즌 K리그1 3위에 자리하면서 구단 역대 최고 순위를 장식한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도 획득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팀에서 ‘강팀’으로 도약한 광주는 올 시즌 리그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아챔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광주 선수단의 각오다.

선수들의 자신감 뒤에는 ‘이정호 매직’이 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3위를 선수들에게 이야기했다. 1부 리그로 복귀한 첫 해, 팬들이 파이널A라는 고지를 바라볼 때 이 감독과 선수들은 그 이상을 보고 있었고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새 시즌을 앞두고 이 감독은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손에 땀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다른 돌풍을 예고했다.

자신감 넘치는 사령탑의 힘. 그 힘의 근원은 선수

광주FC 이정호 감독 자신감 업
아챔스리그서도 경쟁력 보일 것

홈 평균 관중 6000명 넘으면
선수들과 큰 선물 준비하겠다

들이다. 감독과 선수들은 ‘믿음’으로 차근차근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감독은 “감독이라면 우승이 목표다. 아챔도 욕심 있다. 그래서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고 있다. 느리지만 알차게 조금씩 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훈련하는 것 보면 믿음이 있다. 선수들 눈빛, 훈련장에서 하는 것 보면 만족하고 신나 하는 게 보인다. 우리팀 문화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 또 경기장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선수들에게 믿

음이 간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에게 얼마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으로 ‘항상성’을 이야기했다.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발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선수들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도 노력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정호 감독은 저녁까지 거르면서 전술을 연구하고, 선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감독은 “저녁을 먹으면 잠이 와서 일을 못 하니까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재미있다”고 웃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게 재미있는 이 감독은 ‘광주 흥보 대사’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이 감독은 “아챔에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선수들에게 큰 경험과 꿈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광주시를 알리고 싶었다. 광주를 알리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싶었다”며 “큰 무대로 나가야 광주를 주목한다. 광주시를 알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상급도 받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광주 F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책임감도 든다. 그 수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업그레이드된 축구를 위한 올 시즌 키워드는 ‘오프 더 볼’이다. 지난 시즌 이정호 감독은 ‘압박’을 키워드로 해 광주만의 전술과 공간을 만들어서 상대를 공략했다.

이정호 감독은 시즌이 끝난 뒤 유럽 축구를 직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그리고 ‘이정호표’ 영상 미팅으로 선수들에게 생각하는 전술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오프 더 볼, 선수들이 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정했다. 볼 없을 때 세밀함, 볼의 흐름을 빨리 읽으라고 강조한다”며 “똑같은 영상을 보내줘도 선수들 피드백이 다르다. 훈련 많이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공식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다. 문제를 풀면 모르는 동료한테 가르쳐 주면서, 전체가 공식을 익히게 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상대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성장과 책임감이 그

만큼 중요하다. 이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감독은 “베카는 올해 많이 성숙해졌다. 우리 축구에 대해 흡수를 해서 기대가 된다. 새로 온 가브리엘은 분석팀에서 날을 새서 찾은 선수다. 빅토르 상대가 내려왔을 때 허울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입한 장신 선수다. 또 호주 올림픽 대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영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광주의 힘을 보여주면서 관중석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 감독은 분위기를 이어 광주 축구 열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시즌 준비하면서 홈 관중을 어떻게 늘리려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평균 관중이 4500정도 됐다. 경기장이 작아서 7000명은 힘들겠지만, 평균 6000명을 목표로 삼겠다. 목표를 이루면 홈 막바지에 큰 선물을 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선수들과 시즌 잘 준비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이 좋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지만, 그런 불편함에도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시즌 ‘다크호스’ KIA ‘날벼락’

‘폼위손상’ 김종국 감독 계약 해지
2월 1일 호주 전후 무거운 발걸음
단장 이어 감독까지... 이미지 타격
구단 측 “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검찰이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IA는 ‘폼위손상행위’로 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IA는 2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김종국 감독이 피의자 신분이며 ‘배임수재’ 혐의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폼위손상행위’로 판단해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IA는 앞서 28일 김 감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혐의의 김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KIA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장 전 단장을 해임했다. 2022년 박동원과의 다년 계약 협의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임이 결정됐다.

1년 뒤 KIA는 후폭풍을 맞았다.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든기 흘려간 정황을 확인,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2024시즌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KIA는 2월 1일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김 감독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29일 진갑용 수석코치를 비롯한 코치진이 먼저 호주로 떠났다.



29일 KIA 타이거즈 코치진이 스프링캠프인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에는 KIA 선수들이 호주행 비행기에 오른다. 새 시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선수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됐다.

KIA는 계약 해지 소식을 전한 뒤 “김종국 감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KIA 타이거즈 팬, KBO 리그를 사랑하는 야구팬, 그리고 KBO 리그 관계자들에게 격정과 심려를 끼쳤다.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독 및 코칭스태프 인선 프로세스 개선, 구단 구성원들의 준비 교육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을 전해드리게 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단장에 이어 감독까지 팀을 이끄는 두 인물이 연달아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하면서 구단은 큰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산할지에도 야구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KIA는 구단 운영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캠프 시작과 함께 새 사령탑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팬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또 이번 사건으로 괜한 희생양이 된 선수단 분위기 수습도 중요하다.

KIA가 진짜 쇠신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17연패 끊고 웃을까

V-리그 5라운드 시작...31일 현대건설 상대

울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V-리그가 다시 시동을 건다. 페퍼스도 11일 만에 경기를 펼친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축구는 31일 수원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현대건설과의 경기로 5라운드를 시작한다.

지난 4라운드에서 승점을 하나도 더하지 못하며 최악의 라운드를 보낸 페퍼스가 이번 울스타 휴식기를 전환점 삼아 5라운드에서 반동을 보일지 주목된다.

페퍼스는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승점 3점씩을, 3라운드에서는 승점 1점을 더했지만 4라운드에서는 승점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1라운드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점, GS칼텍스를 상대로 1점 그리고 2라운드에서 GS칼텍스전에서 2점, 흥국생명전에서 1점을 따냈다. 3라운드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점을 올렸다. 하지만 페퍼스는 4라운드에서 아쉬운 성적을 남기며 승점 사냥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은 ‘울스타 브레이크’가 페퍼스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페퍼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연패 탈출. 하

지만 4라운드 마지막에 이어 5라운드 시작까지 ‘강팀’ 현대건설을 만난다는 점에서 페퍼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페퍼스는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지난 19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현대건설전에서 패하며 ‘17연패’에 빠졌다. 이는 ‘팀 단일시즌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이다.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에도 17연패를 기록한 페퍼스는 ‘리그 최다 연패’ 순위에서도 공동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페퍼스는 현재 2승 22패, 승점 7로 최하위인 7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5라운드 첫 상대로 만나게 된 현대건설은 현재 19승 5패, 승점 5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페퍼스와의 경기를 포함해 4라운드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며 6연승 중이다.

페퍼스는 야스민의 분전에도 박정아를 100%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팀 단일시즌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을 앞두고 있다. 휴식기 동안 조 트린지 감독이 찾은 ‘필승 조합’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